



제1765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월 17일 (음력 11월 29일) 수요일

## 고건 불출마·정치중단 전격 선언 대선구도 새판짜기 격랑



### 신당 창당 등 與 정계개편에도 파장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 대선 구도의 변화는 물론 정계 개편의 방향 설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 전 총리는 또한, '희망연대' 대표직과 '미래와 경제'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것은 물론, 대선과 관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고 전 총리는 16일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결정하면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깊은 고뇌 끝에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오늘부터 정치 활동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이어 "지난 1년 가까이 나름대로 상생의 정치를 찾아 진력을 해왔지만 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역량이 너무 부족함을 통감했다"고 대선 불출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활동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의 평가를 받아들이며 대선의 해를

1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고건 전 총리가 지지자들의 반대로 기자회견도 하지 못한채 침통한 표정으로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자문위원 직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전도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지지자들의 저지로 기자회견이 힘들게 되자 성명서와 보도 자료를 통해 대선 불출마를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고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대선구도와 정계 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족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당파는 고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대통령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을 높여 신당의 추진력을 높힐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사수파는 선도 탈당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에 따라 독주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민주세력 대통령의 역풍을 겪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고 전 총리의 중도 탈락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정계개편 방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

## “고건 낙마 이명박 이득” 45%

광주일보 인터넷패널…10명중 7명 “호남후보 연연 안해”

광주·전남 여론주도층은 고 건 전 국무총리의 전략적인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명 중 7명 기량은 올해 대선에 호남 후보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결과는 광주일보가 고 건 전 국무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인 16일 오후 본보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e-메일 설문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203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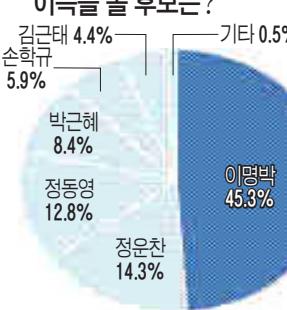
패널이 응답했다.

'고 건 전 총리의 대권 도전 포기로 누가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하는가' 물은 결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라는 응답이 45.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14.3%,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12.8% 순이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8.4%)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5.9%),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4.4%)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올해 대선에 호남 후보가 나와

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8.0%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응답해 '나와야 한다'(32.0%)의 배 이상을 차지했다. 이미 대선 후보로 거론되어 온 정동영 전 의장(전북 출신)은 호남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 배제됐다.

고 전 총리의 대권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응답이 43.8%, '잘 한 일'은 39.9%로 평가가 엇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16.3%였다. /경희증기자 who@kwangju.co.kr

### ■고건 전총리의 대선포기로 이득을 볼 후보는?



▲인터넷 패널=광주일보자가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한국 신문사상 최초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 광주·전남지역 학계, 법조, 정치, 경제,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497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야암 완치 축하해요”

16일 화순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제6회 소야암·백혈병 완치 축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이 완치를 축하하며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 문화수도 새롭게 디자인 한다

### 광주 예술·건축인 등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광주 지역 예술인과 건축인들이 직접 나서 광주 도심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탈바꿈시킨다. 이들은 기존 도심에는 각 지구별 성격에 맞는 리모델링을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신도시 조성 때는 들어서는 건축물의

미적 기준을 제시해 광주 문화수도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광주시는 16일 문화수도 이미지에

하기 위해 지역 내 젊은 예술인·건축가 등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경우,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건축의 미적 기준(건물 형태·색채 등)을 정해 건축 설계시부터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단지나 구도심 등의 지역은 가로나 공원, 푸른 등을 지구별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해 도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체희증기자 chae@

## 盧대통령 “모든 정책 ‘대선용’으로 비방”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야당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남북) 정상회담 까지 끼어서 대선용이 아니냐라고 물어치고 시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세는 대통령과 정부를 무력화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겠다는 그야말로 정략적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새 한국 정부에서는 ‘대선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상당히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을 대선용이라고 꼬리표 짓지를 붙여 비방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기자실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들을 자기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홍보처가 이 조사를 주도해서 체계적



## ALL LASH MASCARA

